

# 2014년 4월 모스크바 러시아 선교교회 선교 현황 사진 보고서

## 김바울 선교사

지난 4월 1일부터 10까지 이스라엘의 북부 아쿠 지역과 하이파 지역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러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러시아인 교회의 초청으로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약 2-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기부츠라는 집단 농장의 강당을 임대하여 신유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낮에는 야외에서 전도집회를 가졌습니다. 막연히 예수를 믿지만 복음을 듣지 못해 알지 못한 그들에게 낮에는 그들에 앉아 성경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50 만 명의 러시아로부터 이주해 간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처음에 미국에 이주해 갔을 때와 같이 러시아 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가 바로 영적인 추수의 기간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고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지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믿고 안수기도를 받고 치료도 받고 결신도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민을 갔지만 언어가 통하지 못하고 직장이 없어서 알콜과 마약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젊은 이들을 위한 전도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가장에서 집회에도 불신자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 우리교회 소식

지난 부활절 주일에 우리교회 젊은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러시아 목회자들이 매주 월요일에 모여 교회 성장과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토의 하고 있습니다.

## 아르메니아의 4개 교회에서 전도 집회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나라이지만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지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그들은 성경과 복음을 전혀 모르고 성자들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와 같은 신앙만 가졌기에 그들은 기복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복음을 참 잘 받아들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장년들은 러시아말은 이해하지만 20대의 젊은이들은 러시아어를 모르고 오직 알메니아 본토말 만 함으로 부득이 두 언어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젊은 이들이 직장이 없어서 시간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낮에 집회를 해도 수 백 명이 모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이제 선교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이 환자들이어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하루에 6-8시간씩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연방에 소속되었으나 1990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젊은 이들이 직장도 없고 학문의 길도 없어서 빈둥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영어교육이나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서 전도하는 길이 제일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무도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협력하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 젊은이들이 단기선교로 아르메니아게 가서 영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아르메니아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이 가까운 멕시코나 도미니카에는 자주 가고 한국의 교회 들은 동남아시아 쪽에 자주 가지만 아르메니아 그루지야 우크라이나 같은 문명국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의 효과가 많은데 여러 교회의 관심과 기도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소도시에서 집회

지난 4월 27일 주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기차로 두 시간 소요되는 알렉산드르 라는 도시의 작은 교회의 초청을 받다 가서 설교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의 시장으로부터 200년된 낡은 건물을 무상으로 받아 그 중에 일부를 예배실로 수리 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교인은 약 20명 앞으로 이 건물을 전부 수리해서 완벽한 교회로 수리해서 사용하려면 십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를 수리하며 전도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목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교회는 많이 세워졌고 목회자들도 많이 배출되었지만 제대로 성경교육을 받고 제대로 목회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현혹 되어가고 있으며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인기가 없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은 선교사들이 러시아의 실정을 잘 모르고 언어도 소통이 되지 않고 구원받고 성경을 잘 아는 통역을 구할 수 없어서 신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고 언어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으나 미국과 한국의 후원교회들의 무관심과 협력 부족으로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 산하 교회에서 러시아 선교(우리교회)를 돕는 교회는 3-4 교회 뿐입니다. 한 달에 \$ 100-\$ 300 정도 보내주시는 선교비로는 아파트 값 \$1800 지불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부터는 금년에 70세 된 사모가 김치 장사를 해서라도 선교비를 마련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